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뉴욕주 1,000곳 이상의 장소에서 대테러 합동 훈련을 완료했음을 발표

훈련은 배송 및 셀프 보관 시설, 상업 공항 및 대규모 인원 밀집지역에 집중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3,500회 이상의 훈련 실시

쇼핑객들에게 연휴 기간 중 주변 환경을 염두할 것을 권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토안보 및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이 2019년 2년 연속으로 1,000곳 이상의 장소에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 중, 주정부 및 지역 대테러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사업체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주지사는 자신의 2016년 시정 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대테러 훈련을 의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현재까지 3,500건 이상의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또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뉴욕 보안 작전(Operation NY-SECURE)"의 일환으로 철도역에서 57 건의 대테러 및 사고 대응 연습을 완료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와 예방은 성공적인 비상 사태 대응의 핵심이며 이러한 훈련은 법 집행 기관의 테러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테러 작전은 사업체와 대중들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은 주 전역의 100여 기관의 400명 이상의 법 집행 인원과 협업하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 훈련 과정에서 주와 지역 기관에서 파견된 대테러 전문가들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사업체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식 및 보고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팀은 175개의 철물점 및 농업 매장,, 112개의 트럭 임대소, 93개의 드론 소매업체, 92개의 대형 박스 소매업체, 79개의 셀프 스토리지 시설, 78개의 개인 운송 시설, 74개의 호텔, 24개의 총기 및 스포츠 용품 매장 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팀은 공격에 활용되거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200개 이상의 인프라 위치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 쇼핑몰 및 쇼핑 센터, 병원, 대학 및 대학,

공항, 교통 허브 및 기타 대량 수집 장소와 같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의 관계자들은 다수의 장소에서 관리자 및 직원들의 테러 지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이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의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적절히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사업체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인식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 전문가와 직접 협력하여 개선 및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사무국(DHSES)은 또한 연방, 주, 지역 집행 기관과 "뉴욕 보안 작전(Operation NY-SECURE)" 수행에 협력하여, 암트랙(Amtrak) 루트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통근 노선을 따라 대테러 및 비상 사태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본 작전의 목표는 공조 능력과 각 역을 책임지는 철도 경찰 기관, 주, 지방 법집행기관 간 대응을 개선하여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띄는 선제적 훈련에는 플랫폼 순찰 강화, 기차 내 보안 개선. 폭발물 탐지견 배치, 대감시 수단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뉴욕 보안 작전(Operation NY-SECURE)에 따라, 암트랙(Amtrak) 노선 및 엠파이어 라인(Empire Line)을 따라 위치한 지하철역(MTA stations)의 14개 역에서 동시 훈련을 실시했고, 주 전역의 단일 역에서 추가적으로 14개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천재,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